



경제의 틀을 바꾸면
미래가 달라집니다.

국 민 행 복



보 도 자 료



보도일시	'15. 4. 14(화) 조간(온라인 4.13. 12:00)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		
배포일시	'15. 4. 13(월) 09:00		
문의	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	정보활용지원팀 학교생활문화과 보호관찰과 병영정책과 게임콘텐츠산업과 정신건강정책과 청소년매체환경과 인터넷윤리팀	이재형 팀장 (02-2110-2970) 정시영 과장 (044- 203-6539) 김기환 과장 (02-2110-3478) 박영식 과장 (02- 748-5160) 강석원 과장 (044-203-2441) 이중규 과장 (044-202-2860) 김성벽 과장 (02-2100-6301) 최선경 팀장 (02-2110-1560)
			윤석주 사무관 (2975) 서민경 주무관 (6978) 정경아 주무관 (3837) 황장선 중령 (5162) 정태구 사무관 (2448) 문상준 사무관 (2865) 김지수 서기관 (6302) 정일선 사무관 (1513)

인터넷·스마트폰 과다사용 피해 예방을 위해 범 부처 협력 - 「2015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」 발표 -

- 우리 국민의 인터넷중독 위험군 비율은 '04년 첫 조사 이후 현재까지 감소('04년 14.6% → '14년 6.9%)하고 있다. 반면, 스마트폰중독 위험군 비율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('11년 8.4% → '14년 14.2%)하고 있어 민·관의 꾸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.

인터넷중독 위험군 비율



스마트폰중독 위험군 비율



※ 인터넷(스마트폰)중독 위험군 : 인터넷(스마트폰)을 과다 사용하여 이에 대한 금단, 내성 또는 일상생활장애 중 1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중독 위험군으로 구분

- 정부는 오늘 「2014년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」 발표와 함께, 「2015년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. 금번 추진계획은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('13~'15, '13년 수립)에 따라 미래부 등 8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.

* 미래부, 문체부, 여가부, 복지부, 교육부, 법무부, 국방부, 방통위 등 8개 부처 참여

2014년 실태조사 주요결과

- 미래창조과학부(장관 최양희)와 한국정보화진흥원(원장 서병조)은 만3세 이상 59세 이하 인터넷 이용자 18,5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대인면접조사를 통하여 '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'를 실시하였다.

※ 조사대상 확대 : ('13년) 만5~54세 17,500명 → ('14년) 만3~59세 18,500명

- (인터넷중독 위험군) 유아동, 청소년, 성인 등 전체 인터넷 이용자(3~59세)의 6.9%(인구수 2,621천명)로 전년(7.0%) 대비 0.1%p 감소
- (스마트폰중독 위험군) 청소년, 성인 등 스마트폰 이용자(10~59세)의 14.2%(인구수 4,561천명)로 전년(11.8%) 대비 2.4%p 증가

2015년 추진계획 주요내용

-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통합적·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'2015년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'을 수립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먼저, 유아동·청소년·성인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중독 예방교육을 제공한다. 특히 2015년에는 스토리텔링 방식의 유아용 놀이교구를 신규로 개발·보급한다. 또한,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예방하는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(14개교)를 지정·운영하고, 교사 및 전문상담사 1000명을 대상으로 '게임 리터러시 교육'을 실시, 교사의 게임 과몰입 예방 지도·소통 역량을 강화한다.

- 인터넷중독에 대한 **효과적인 상담 대응**을 위해 **상담기록 표준화 매뉴얼**을 제작하여 보급하고, 지역 상담기관을 통한 **유형별(SNS·게임 등) 상담프로그램**도 운영한다. 우울증과 같은 **공존질환**을 보유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상담과 병원치료를 연계하여 지원한다.
- 인터넷중독 상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상담시설 40곳을 **협력기관**으로 지정하여 취약 지역 방문상담을 지원한다. 유관 기관간 상담사례를 공유하여 상담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, 언론·기업 등과 함께 **민·관 홍보캠페인**을 전개하여 건강한 인터넷·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정착되도록 지원한다.
- 광역 시도 중심으로 지역 **인터넷중독대응센터**를 확대하고(15→17개소), 중독 고위험군 대상 **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** 운영도 확대(13회, 5천명)한다. 아울러, **유아동(만3세~9세)**을 위한 **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**를 신규로 개발·적용하여 유아동의 중독 조기진입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.
- 미래창조과학부 정한근 **정보보호정책관**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**건전하게 사용하는 습관이 정착**되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, 국민 누구에게나 **인터넷·스마트폰 이용행태 개선**을 지원해주는 **전문 상담기관**을 전국적으로 **구축·운영**하고 있다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2015년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(요약)
 2. 2015년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(본문, 별첨)
 3. 2014년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(별첨). 끝.

2015년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(요약)

□ 추진배경

- 인터넷 이용자 증가와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으로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지나친 **과다사용** 우려

※ 인터넷중독 위험군(%) : ('11년) 7.7 → ('12년) 7.2 → ('13년) 7.0 → ('14년) 6.9

※ 스마트폰중독 위험군(%) : ('11년) 8.4 → ('12년) 11.1 → ('13년) 11.8 → ('14년) 14.2

-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「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(13~15)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계부처* 공동으로 연도별 **추진계획 수립·시행**

* 미래부, 문체부, 여가부, 복지부, 교육부, 법무부, 국방부, 방통위 등 8개 부처 참여

□ 주요 추진내용

- (예방교육) 스토리텔링 방식 유아용 놀이교구 개발·보급, 게임과몰입 예방 가족캠프 운영(500명),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예방하는 **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**(14개교) 지정·운영 등

- (상담·치료) 표준 상담매뉴얼 제작·보급, 청소년(초4·중1·고1 148만명) 이용 습관 진단조사로 **중독위험군 발굴** 및 상담(계속), 우울증과 같은 공존질환 보유 청소년의 **병원치료** 지원(계속), 초등학교 **가족 치유캠프**(10회→15회) 운영 등

- (협력체계) 민간 상담시설을 협력기관으로 지정·운영(40곳), 유관기관간 상담 사례 공유 및 공동 홍보캠페인 전개, 유관부처 공동협력을 위한 **인터넷중독 정책협의회** 운영(계속) 등

- (인프라·제도) 인터넷중독대응센터 확대(15→17개소), 중독 고위험군 대상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확대(13회, 5천명), **유아동**(만3세~9세)을 위한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개발·적용 등